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6월 15일(금)

... (음력 5월 2일) ...

Пятница

15 июня 2018 г.

№ 23(11679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6월 12일은 러시아의 날이다. 이날 사할린에서 많은 기념 행사가 개최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주요 행사는 레닌광장에서 펼쳐졌다.

(관련기사 3면)

(이예식 기자 촬영)

'세계 평화를 위해 큰 토대를 놓았다.'

조미 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 센 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오전에 열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로 70년간 얼룩진 냉전이 해체되는 사건이 시작되었다. 양 정상은 모두 발언 뒤, 통역자만 대동한 35분의 단독회담, 이후 확대회담 100분과 업무 오찬, 양 정상의 합의문 서명까지 4시간 45분 만에 악수를 하고 기념촬영을 한 후 헤어졌다.

양 정상은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쉽지 않았다.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과거가 있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정말 성공적일 것이며 우리는 훌륭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조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날까지도 조미 실무자들 간의 협상이 지속된 가운데 회담의 주요 의제인 조선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체제 보장, 관계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양 정상의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서명식이 이뤄졌다. 서명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만남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서명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굉장히 포괄적인 문서다."라고 언급했다.

김정은 조선공화국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의문 전문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2. 두 나라는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확인된 사람들 전쟁포로 및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발굴, 수습, 즉각적인 송환을 약속한다.

사상 첫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상회담이 양국 간 수십 년간 긴장과 적대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음을 승인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공동 합의의 조항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하여 회담 결과와 의견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해 큰 토대를 놓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측이 요구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언급 없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데 대해 언론사들마다 다양한 견해와 비평을 내놓았다. 이후 합의를 토대로 조·미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고위급 당국자가 이끄는 후속 협상을 열어 회담의 결과를 이행해갈 전망이다.

14일에는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렸다. (본사 기자)

단신

14일, 한인 1세 동포 26명 건강증진을 위해 한국으로 떠나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인요한)이 추진하는 제 3차 초청진료사업 프로그램으로 사할린 한인 1세 26명이 이번에 한국에서 검진과 진료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6월 14일 1세 어르신들 26명과 보호자들을 포함해 총 41명이 한국으로 떠났다고 사할린주한인회 관계자가 밝혔다. 방문단 중에는 사할린주 한인회 박순옥 회장도 함께 했다. 의료재단은 주 한인회와 협력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3차로 한국에 가게 된 사할린 한인들은 서울 동대문 특구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밀검사와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사할린 어르신들의 첫 기본 검사는 15일(금)에 받고, 본격적인 검진은 18일부터 시작된다. 16일, 17일에는 사할린한인들을 위해 한국 문화탐방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고 전해졌다.

연초부터 명태 19만2000톤 어획

연초부터 사할린주의 업체들이 어류 및 수산물 등 28만5500톤을 획득했다. 그중 19만2000톤은 사할린 부근에서 잡은 명태이다. 청어는 2만2000여 톤을 획득했다. 모이와 해역에서 어획은 양호한 편으로 인근 해역의 어획량은 올해 1만 톤에 달했고 쿠릴 남부와 북부 지역들에서는 대구잡이를 계속하여 총어획량은 8000톤에 달했다.

비싼 값으로 수출하고 있는 수산물 중에 1위인 대게는 8000여 톤 어획, 성게는 4300톤, 새우는 3700톤, 쿠쿠마리아(해삼류)는 2500톤을 획득했다.

사할린 박람회 전국 <2018년 러시아의 상업>콩쿠르에서 우승

코르사코브시가 처음으로 <우수 박람회>부문에서 우승했다. 코르사코브시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펼쳐지는 666개 박람회와 경쟁해야 했다.

코르사코브시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에서는 금요일마다 상품 생산자들이 모여 박람회를 여는데 제과류, 채소, 생선, 육류, 농산물 등의 현지 생산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구매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이 곳에서 고객들에게 우하(러시아 생선탕), 샤슬리크(돼지고기 꼬치구이), 필라프(볶음밥) 등을 무료 시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하대, "사회통합과 이주민 생애사 연구 모형 개발을 위한 워크숍" 열어

인하대(총장 대행·이현우)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소장 김영순)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2명의 인생담을 책으로 엮어 출간한다. 오는 6월 16일 인하대에서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출판기념회 겸 이주민 생애사 연구 모형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연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아시아 다문화융합연구소에서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의 생애사에 관한 내용을 집필하기 위해 남동사할린센터 사할린경로당(신동식 회장)과 MOU를 체결하고 어르신들의 협력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자료수집을 위해 한국 내는 물론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참여 관찰과 심층인터뷰 등을 수행하였다.

새고려신문

2018년 하반기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76루블리 2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한인들이 옛날부터 좋아하는 전문직은 3가지였다. 의사, 교사, 변호사다. 그래서 사할린에서도 바로 이 의료보건, 교육 분야에서 성공하는 동포들이 많다.

홀 스웨틀라나 안드레예나는 사할린주 아동병원의 총간호장이다. 1958년생인 그녀는 동포 2세이며 부모님이 주신 이름은 문화순이다. 한 씨 성을 가진 동포와 결혼했는데 그의 성이 여권에 '홀'로 적혀 있어서 남편 성을 가지게 된 스웨틀라나도 '홀'으로 되어 그렇게 거의 35년을 살고 있다.

병원에서 스웨틀라나 안드레예나를 만났을 때 그의 첫 마디는 병원 재정 사정을 걱정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의약품, 소독제, 세제 구입 문제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전자경매로 넘어가면서 최근 2년간 항상 문제가 생긴다면서 집행자 측에서 제때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거나 병원 측과 상의 없이 주문 물품 대신 비슷한 물품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홀 간호장은 크게 걱정했다. "아이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세제들로 함부로 바꾸면 문제 생길까 봐 그래요."라고 설명했다.

몇 년 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아동병원은 주아동병원이 되었다. 현재 이 병원은 285병석이다. 185명의 간호사와 130명의 보조 간호인들은 23개 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들은 총간호장 밑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병원 간호사들의 평균 나이는 35세 이상이다. 간호사의 85%는 2급, 1급, 고급 자격증을 갖고 있다. 3년 이상을 일해야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총간호장은 사할린주 아동병원에서 믿음직하고 전문적인 실력이 높은 간호사들이 일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조금 더 젊은 인재를 유치해야 하는데 이 문제도

올 6월 17일 러시아 의료진의 날 기념

천직에 바친 약 40년의 세월

사할린주 아동병원 총간호장 홀 스웨틀라나 안드레예나



조금씩 풀리고 있다고 한다. 작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의과전문학교 졸업생들 몇 명이 간호사로 취직했고 올해도 병원에서는 새 간호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졸업생들이 아동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홀 스웨틀라나 총간호장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작년 9월부터 이곳 의과전문학교에서 <간호사 업무>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아동병원에 좋은 학생들을 섭외하느라고 노력해왔다.

홀 간호장은 "우리 간호사들은 마음은 항상 젊어요. 애들하고 일하니까. 간호사들은 그저 간호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육자이고 심리상담자이기도 합니다."라고 했다. 또 하나는 소아과에서 일하자면 아이들을 좋아해야 한다고 했다.

형제가 많은 가족 안에서 자라는 스웨틀라나는 유일하게 의료 분야와 관련된 일을 선택했다. 그녀의 꿈은 의사였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르쿠츠크 의대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치열한 경쟁이었고 점수가 조금 못자라 통과하지 못했다. 사할린에 돌아와 화학실험실에서 1년 일하다가 시험준비를 해 다시 의대에 가려고

했지만 이 생각을 접어야만 했다. 아버지가 병에 걸려 수발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스웨틀라나는 알렉산드로브스크-사할린스키 의과전문학교 유즈노사할린스크 분교에서 공부하기로 했다. 그 당시 소아 간호학과가 개설되어 스웨틀라나는 그 과정을 마치게 되었다. 그가 졸업한 1979년 당시에 전문학교, 대학 졸업생들은 학교에서 파견하는 곳에서만 일할 수 있었다.

사실 스웨틀라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안쿠지노브 시병원에서 실습을 시작하여 그쪽에서도 잘 대해주어 그녀는 졸업 후 이 병원에서 계속 일하길 원했다. 그런데 그녀는 아동병원으로 파견되었다. 이를 어기고 한 달간이나 시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아동병원 측에서 그녀를 찾아와 "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재"라며 스웨틀라나가 원하는 외과에 취직시켰다고 한다. 교육에 대한 의욕이 많은 스웨틀라나는 4점 하나 제외하고는 나머지 5점의 최우등 졸업장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공부만 아니라 아주 성실한 간호사였다. 수술실에서나, 시술실에서나, 환자실에서나 모든 과정을 잘 수행했다.

눈에 돌보이는 그녀의 열정을 외과 지도부에서 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취직 2년 후 그녀를 아동병원 외과 간호장으로 임명했다. 사설 규칙에 따라 승진은 취직 3년 후에만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10년 지켜왔다.

1992년에 둘째 아이가 1살 되고 육아휴직에 들어갔을 때 홀 간호사는 병원에서 와달라는 호

출을 받았다. 지도부에서 병원 총간호장직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남편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육아휴가를 포기하고 당장 출근해야 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그녀는 처음부터 이일을 배우게 되었다. 첫 2년은 서류 연구에만 거의 빠졌다. 물론 간호사 활동 감독도 했다.

홀 간호장은 "물론 그 당시 제가 좋은 상사는 아니었어요. 서류에 많이 집중하고 둘째가 너무 어리다 보니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죠. 제가 책자를 들고 잠이 들었거든요. 5년이 지나서야 많이 나아졌어요. 당시 보건관리국에서 저를 간호사 상담전문가로 초대해 함께 도시의 모든 병원, 노위알렉산드롭스크, 코르사코브, 아나와 병원까지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지방병원들이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현지 간호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하고 도우려고 애를 많이 썼죠."라고 이야기를 이었다.

2002년에 홀 간호장은 시병원 총간호장, 그리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제4 진료소 총간호장과 함께 러시아 간호사연합회 사할린 지부를 개설했다. 개최자로 나선 이들은 사할린 간호사들을 위해 많은 기획들도 추진했다. 그중 간호사들의 학술회, 우수 간호사 경연대회, 실제 연구사업, 창작 활동 등이다. 이 기획들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홀 스웨틀라나 간호장은 간호사의 표준과정 등을 도입하고 이 경험을 다른 의료기관들과 공유하고 많은 상담도 하고 있다. 한 자리에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녀는 새로운 논문들과 교재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

사실 간호사 관련된 일이라면 홀 간호장은 말이 끝이 없다. 그녀가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홀 스웨틀라나는 간호사 전공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적성에 맞는 일이고 이 일을 하면서 자신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재미있고 소아과 간호사로 활동하는 게 좋다고 했다.

그동안 유즈노사할린스크 의과전문학교 간호사 고급과정을 마쳤고, 간호사 강사 자격증도 따냈다. 그 후로는 하바롭스크 의대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홀 간호장은 이미 몇 년간 의료기관들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한 고급과정 강사, 전문학교 간호학과 강사를 하고 있다.

올해 60을 맞이한 홀 스웨틀라나 간호장은 "한편, 나이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간호사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확신도 있다."고 말한다. 그 동안 그는 러시아 보건부 표창장을 비롯 여러 포상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두 딸의 엄마, 한 손녀의 할머니로서도 행복을 누리고 있다.

작별인사를 나눌 때 그녀에게 누군가 전화를 걸어왔다. 알고본즉, 홀 간호장은 병원에서 '의료진 기념의 날' 행사를 맡고 있는데 예술단 섭외와 관련한 전화였다. 필자는 또다시 그녀의 열정에 놀랐다. 정말 자랑스럽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세나 구조원' 사할린 게임, 전국공익광고대회에서 수상

사할린 학생들 사이에 2년째 확대되고 있는 '세나 구조원' 스마트폰 게임앱이 전국공익광고대회에서 비영리단체들과 '미래의 광고' 사회적 기업가들 중에 3위를 수상했다. 본 기획은 <안전은 중요하다> 프로그램용으로 글래드웨이(Glad way)사회적 프로그램과 미디어 기획개발기금재단이 특별히 제작했다고 <사할린 에너지> 홍보실이 전했다.

승리를 거두기는 쉽지 않았다. 대회 사이트에 참가자들의 파일이 762개나 올랐다. 그중 260개 파일이 심사위원회의 평가로 통과하게 되었다. 각 작품들은 목적에 부합되는지, 이용자의 만족도, 명료성, 독창성, 품질 등 5 가지로 평가되었다.

'세나 구조원' 게임은 2005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안전은 중요하다>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 되었다. '사할린 에너지' 회사, 사할린주 러시아 비상대책본부, 지역 교육부가 공동으로 기획한 게임은 아동과 성인들에게 안전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조성하는 데 있다.

줄거리는 세나가 길 잃은 친구 바시카 고양이를 찾으러 간다. 소년은 사할린을 여행하면서 여러가지의 시련을 겪게 된다. 어린 구조원을 돕기 위해 게임 참가자는 주제 영상을 조사하고, 질문에 답하며, 두뇌게임도 통과해야 한다. 앱 진흥의 범위에서 제작되어 소셜네트워크 계정의 지원을 받고 있다.

Сахалинская игра "Сеня-спасатель" получила диплом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оциальной рекламы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 игра "Сеня-спасатель", в которую вот уже второй год с увлечением играют саха-

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получила диплом третьей степен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оциальной рекламы среди НКО и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Реклама будущего". Проект разработан фондом развития медиапроектов и соци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Gladway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программы "Безопасность – это важно!",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Одержат победы было непросто. На сайте конкурса было размещено 762 медиафайла от участников, для оценки жюри было допущено 260. Каждая работа оценивалась по пяти критериям: соответствие цели и аудитории, понятность, креатив, качество.

Игра "Сеня-спасатель" стала частью программы "Безопасность – это важно!", действующей с 2005 года.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ГУ МЧ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направлен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у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Ее сюжет прост: Сеня идет искать потерявшегося друга, кота Ваську. Мальчик путешествует по Сахалину и проходит различные испытания. Чтобы помочь юному спасателю, игрок должен просматривать сюжетные ролики, отвечать на вопросы и проходить логические игры. В рамках продвижения приложения созданы и поддерживаются аккаунты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활동적 교육' 사할린센터,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무료 수업 시작

2016년부터 '활동적 교육' 학습센터는 <아빌림픽: 장애인 기능올림픽> 특수장애인들을 위한 지역 및 전국 챔피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신체·발달장애인들을 준비시키고있다.

2016년과 2017년에 학습센터의 학생들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전 러시아 연방 대회에서 사할린의 명예를 잘 지켜내어 동메달을 수상하고 돌아왔다.

2017년에 학습센터는 전국대회에 참가 경험을 고려해 역량의 목록을 확대하고 로봇공학을 추가하여 장애아들에게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빌림픽' 사할린대회 결과에 따라 지역 교육부의 지원으로 전문가들과 아동들, 학습센터에서 준비한 인솔자들이 사할린의 대표단이 되었다. 사할린주를 대표한 정 일리야는 전국대회에 참가해 '데이터베이스(사회정보통합) 관리' 분야에서 동메달을 수상했다.

2017년 12월에 사할린주 교육부는 학습센터의 장애아동 직업훈련기획을 지역교육혁신장으로 승인했다.

2018년 6월 1일에는 이 기획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공된 대통령 장려기금재단의 지원금으로 학습센터는 지방·전국대회에 학생들이 참가하도록 준비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준비하는 학생들의 기능 분야도 확대하도록 했다.

9월에 학습센터에서는 신체·발달 장애아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학습과정이 개설된다. 데이터 베이스(사회정보통합) 관리; 캐릭터 디자인/애니메이션; 로봇공학; 레고창작.

현재 무료 수강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10월 23일- 24일간 개최되는 '아빌림픽' 사할린 대회 이전에는 9월과 10월에 걸쳐 수업이 진행된다.

Сахалинский центр "Ак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объявил набор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на бесплатные курсы

Учебный центр "Ак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с 2016 года ведет подготовку ребят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и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к участию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и национальном чемпионатах для особенных людей "Абилимписк".

В 2016 и 2017 годах воспитанники центра возвращались с бронзовыми медалями из Москвы, успешно отстаивая честь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на уров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17 году, с учетом опыта участи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чемпионате, учебный центр расширил перечень компетенций, по которым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бесплатная подготовка детей, добавив "Робототехнику".

(8면에 계속)

사할린주, 러시아의 날 기념

6월 12일은 러시아의 날이다. 이날 사할린주 모든 구역들에서 명절 프로그램, 애국 행사, 스포츠경기와 전시회, 연극공연 등이 펼쳐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명절 기념은 레닌광장에서 시작됐다. 민족 사회단체 대표들과 예술학교 학생들이 합동으로 애국가를 불러 공연을 개막했다. 사할린주한인회도 이에 참가했다. 축사를 한 올레그 코제마코 사할린주 지사는 "친애하는 여러분, 러시아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명절은 중요한 국가 명절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우리 공동의 집이고 우리 모두가 이곳에 평화와 질서가 깃들며 주민들이 안전을 느끼고, 내일을 꿈꿀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 연방 차원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일들이 우리 사할린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경제 분야에서, 시와 각 지방들을 재정비함에 있어 다양한 기획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과 마을이 건설되고, 유치원, 학교와 병원, 새로운 스포츠 및 문화적 공간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크고 주요한 것은 지역 사회적 지원조치방안 들입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 일자리 조성 등 사할린은 갈수록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도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날, 6월의 하늘이 흐리고 추우에도 불구하고 레닌광장에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공연이 펼쳐졌다. 여러 예술단들은 사할린주 역사와 원주민들에 관한 공연, 노래와 춤으로 시민들의 기분을 흥겹게 했다.

레닌 광장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특히 다양한 민족 요리가 소개되고, 갖가지 먹거리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명절 프로그램은 가가린시공원, 주향도박물관, 여러 문화회관 등에서도 펼쳐졌다.

20시에는 레닌광장에서 알렉산드르 파나이오토브 인기가수의 공연이 열리고 22시에는 불꽃놀이로 폭죽이 하늘로 솟으며 축제는 마무리되었다.

(취재: 이예식 기자)



재외동포재단,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실시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4개국 고려인 한국어 교사 30명 참가
- 13일(수)부터 5주간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수업 및 역사·문화 체험 진행
- 다양한 문화 탐방 및 현장 학습으로 한민족 정체성 확립 및 민족적 자긍심 고취 기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한국어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13일(수)부터 7월 18일(목)까지 약 5주간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를 진행한다.

고려인 한국어 교사들의 한국어 교육 역량과 한국 역사·문화 체험을 통한 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서 온 고려인 한글 학교 교사 30명이 참가했다.

연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한국어 수준에 따른 분반 수업에 참여하고, 교수법과 개인 맞춤형 학습, 국내 교육기관 방문 및 수업 참관 등을 통해 한국어 교사로서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주력한다.

- 특히, 올해는 고려인 한국어 교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발음법과 글쓰기 수업, 멘토링, 한국어 교육자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참가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그 밖에 UNESCO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과 종묘, 제주도 문화 탐방, 독립기념관, DMZ 도라산 전망대 방문 등 한국의 문화유산과 지역별 역사·문화 체험을 통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한국방문 체험수기 우수상

제 외국 생활

저는 동양어를 배우는 9번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2006년에 사할린국립대학에 한국어과에 입학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대학에서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반 반장을 맡았습니다.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 2년 동안 한국어 고급반에 다녔고, 거기에서 색소폰을 배웠습니다. 3학년 때부터 영어과외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계속 한국어와 러시아어 과외를 했습니다. 4학년 들어가기 전에 영어를 실습하기 위해서 3월간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2011년에는 외국어 전문가 학위와 우수졸업장 받으며 졸업했습니다.

2012년에 한국 정부 지원 덕분에 한국에 있는 동서대학에 편입생으로 입학했고 국제학부 국제물류학과에서 공부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많이 사귀러 마케팅동아리에 들어가서 마케팅 연구를 하면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2년 동안 바다 가까이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 정말 바람이 센 겨울을 느끼며 사계절을 다 경험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봄에는 어디 가든지 벚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기 때문입니다.

동서대에서 공부하면서 국제기숙사에서 재미있게 거주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아프리카, 폴란드, 독일 등등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특히 러시아 친구들과 가족처럼 즐겁게 지냈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빌려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같이 잘도 놀았습니다. 지금은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시절이었고 그때가 그립습니다.

많은 추억과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지내고 가능하면 가끔씩 만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고,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2년의 생활은 제 성격에 큰 영향을 주었으

며, 더 활발하고 사교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많은 활동도 했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대학생들과 같이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경험도 해봤습니다. 사할린대학 한국어과를 졸업했지만 국제물류학과에서 공부하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이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적은 평균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라도 시작만 하면 그것을 실행하기까지 많은 힘이 들어도 끝까지 제때에 완성해 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학업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행동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해보고 정해진 목표달성을 향해 최선을 다하곤 합니다.

여행을 좋아해서 방학 때 많이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서울, 인천, 안산, 경주, 여수, 밀양, 제주 등등에 가보기도 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서울 국제꽃축제, 여러 봉사활동, 등산, 아르바이트 경험, 언어 교환 등등 정말 많은 걸 해봤습니다. 경주시는 저에게 여러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러시아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면 저에게 가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국어 실력이 서서히 늘면서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따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한국회사에서 통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국사람들과 일하기가 불편할 수 있지만 일하면서 항상 새로운 것을 알게 돼서 재미있습니다. 오랫동안 배운 한국말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보람을 느껴요. 무엇보다 저의 부모님과 한국말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살아가면서 2년간의 제 외국생활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곽 올가)

재외국민, 최소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보건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확정

재외국민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앞으로는 최소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6월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방안은 '외국인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제도'를 당면 가입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들의 국민건강보험 신청에 필요한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단기간 한국에 머물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액 진료료 받고 출국하는 소위 '떡튀'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보건 당국의 설명이다.

단, 유학이나 결혼 등 이유로 입국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줄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 세대에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현재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내에 소득 재산이 없거나 과약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기존과 같이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만약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법무부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각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가입 정보, 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정보 등을 제공받아 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게 된다.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훔쳐서 이용한 외국인과 보험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료 받거나 보험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은 앞으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을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НИГИ В КНИГЕ

Книги в отличие от людей живут долго, но, как и люди, книги бывают разным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книги-долгожители, по установившейся традиции, именуют памятниками, особо ценными и редкими документами. И таких, судя по недавно изданному каталогу «Книжные памятники, коллекции, особо ценные и редкие документы в фонд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2017), хранится около 400 изданий.



Начинается книжный отчет в каталоге с появившейся в 1581 году печатной «Библии-Острога» Ивана Федорова и других книг древнерус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 псалтири, духовных поучений, житийной литературы о святых; продолжается научными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ми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Основную часть хранящихся книг составляют издания конца XIX века. В перечне этих изданий обнаруживаются как хорошо известные по шко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книги русских и зарубежных писателей, так и забытые, но когда-то популярные сочинения.

Каждая отдельная статья по описанию того или иного документа — это история долгой жизни книги и вместе с этим история ее нынешнего состояния. Потертости и заклейки, реставрации и фоксинги, пятна и заломы, разрывы и сшивки — это то, что сопровождает книгу на ее долгом пути; то, на что следует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реставратору и читателю; то, ч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прежней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и книги.

Человек, прикасаясь к таким изданиям, безусловно должен испытывать связь времен, память прошлого и вместе с этим надежду на все еще остающуюся нужность и важность книги, запечатлевшей в слове вещный мир цивилизации.

Появившийся благодаря коллективу семи специалистов (составителя, автора вступительной статьи и редакторов) каталог, конечно же не заменяет собой всех хранящих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книг, но предлагает разные виды обозрения: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ий, собственно исторический и тематический, когда книги могут быть востребованы по тому или иному случаю.

Так, например, в коллек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и есть книги на корейскую тематику: московское издание «Как живут и работают корейцы» (1904), составленное Иваном Селивановским, и очерки Вацлава Серошевского «Корея» (вероятно, издано в 1905). Разные упоминания о Корее конца XIX — начала XX столетия в связи с началом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или освоение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можно найти и в других особо редких книгах, хранящихс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этих и других изданий на выставках или друг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дает хранящимся в библиотечном уединении книгам вторую возможность выхода «в свет», знакомства с читателями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 - 15.00)

Юбилей,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реклама



Сахалинские каратисты завоевали 13 золотых медалей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 Пусане

Сборная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олимпийскому каратэ "11thKoreaOpen" в Пусане.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4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14 стран. Сборную команд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ставляли: Дарья Галкина, Семен Губайдулин, Константин Коковуров, Жанна Костюшкина, Ли Ен Бок, Эллина Мороз, Алексей Новиков, Максим Пе, Даниил Петраков, Александр Рим, Роман Сова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манды Ким Ден Тхе. В судействе соревновани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директор школы восточных видов единоборств Леонид Ким, тренеры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портив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Алексей Новиков и Александр Рим.

1 место завоевали:

- Губайдулин Семен (кумитэ мужчины 18 лет и старше в/к до 67 кг);
- Новиков Алексей — (кумитэ мужчины 18 лет и старше в/к до 84 кг);
- Галкина Дарья — (ката девушки 14-15 лет, кумитэ девушки 14-15 лет в/к свыше 54 кг);
- Коковуров Константин — (ката юноши 14-15 лет, кумитэ юноши 14-15 лет в/к свыше 70 кг);
- Костюшкина Жанна (кумитэ юниорки 16-17 лет в/к до 53 кг);
- Ли Ен Бок (кумитэ юноши 14-15 лет в/к до 52 кг);
- Петраков Даниил (кумитэ юниоры 14-15 лет в/к до 63 кг);



- Мороз Эллина (ката девушки 12-13 лет, кумитэ девушки 12-13 лет);
- Пе Максим (кумитэ мальчики 10-11 лет);
- Сова Роман (кумитэ мальчики 10-11 лет).

2 место завоевал:

- Ким Ден Тхе (ката мужчины (ветераны).

3 место заняли:

- Костюшкина Жанна (ката юниорки 16-17 лет);
- Пе Максим (ката мальчики 10-11 лет);
- Сова Роман (ката мальчики 10-11 лет);

В итоге сборная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оевала: 13 золотых, 1 серебряную и 4 бронзовых медал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центр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Послевоенный гражданский статус корейцев, колонизированных Японией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Доклад представлен на конферен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етроспектива и перспектива», май 2018 г.)

А.Т. Кузин,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21, 22)

Те из них, которые имеют росси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состоят на консульском учете, поддерживают родственные и деловые связи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и одновременно способствуют укреплению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В отнош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авов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таково, что оно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имеющим росси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реализовывать свои права и свободы как гражданин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менно и только на её территории. Своеобразие коллизии в том,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КНДР не признают друг друга как суверенные государства, а их граждане



по отношению друг к другу считают себя иностранцами. Все это имее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которые при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вынуждены были принимать гражданство КНДР тольк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избавиться от позорного бесправного положения и получить хоть какую-то дипломатическую защиту.

Что касается порядка принятия россий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выходцами из КНДР, то он, по существу, остается прежним и возможен только в случае согласия властей КНДР на выход из национальн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Но в силу того, что добиться такого согласия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делом крайне затруднительным, то с течением времени проживающ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рейцы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гражданством умышленно теряют свои паспорта и переходят в категорию лиц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В Сеуле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Михаила Пака

В галерее на Инсадоне открылась персон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картин художника Михаила Пака (на снимке 3-й справа). Он известен и как писатель, номинант Букеровской премии, чья проза удивительно созвучна его картинам.

Не случайно выставка картин сопровождалась презентацией книги «Натюрморт с яблоками», переведенной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артины его, несмотря на буйство красок, удивительно сдержаны, полны гармонии. В своих картинах художник сосредоточен на внутреннем мире человека.

Как художник Пак Михаил, прежде всего, колорист и стилист. Его

последняя выставка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в его картинах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озрастают элементы декоративности, палитра красок становится насыщенной, художник смело экспериментирует, находясь в поисках гармонии.

Недавно художник приступил к новому циклу зарисовок корейского быта по произведениям народн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Пак

Кен Ри, чей роман «Земля» он сейчас переводит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ИА Рускор)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Заканчив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476 руб. 2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21-23 июня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осетит с визитом Россию

С 21 по 23 июня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осетит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визитом Россию. Он встретится с российским президентом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Это будет третья по счету встреча лидеров двух стран. Предыдущие состоялись в рамках саммита «Большой двадцатки» в июле 2017 года в Гамбурге и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ходе предстоящей поездк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намерен заручиться поддержкой России в деле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мимо этого, стороны обсудят план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соединение Транскорей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с Транссибирской магистралью.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также намерен встретиться с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ми официальными лицами, включа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России Дмитрия Медведева, а также 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и россиянами, которые внесли вклад в укрепление двух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Помимо этого, Мун Чжэ Ин первым из южнокорейских лидеров выступит перед депутатами Госдумы. 23 июня Мун Чжэ Ин посмотрит матч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по футболу между сборными РК и Мексики в Ростове-на-Дону.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им Ый Гём отметил, что предстоящий саммит создаст платформу для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в реализации Новой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 также внесёт вклад в укрепление традиционной дружбы, добрососедства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в деле обеспечения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Делегация Юга осмотрела объекты в Кэсонском индуст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8 июн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провела осмотр объектов в Кэсонском индуст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ки к созданию совместного пункта оперативной связи. Делегация, возглавляемая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Чхон Хе Соном, в течение семи часов осматривала зда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мплекса, чтобы подобрать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щее место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офиса пункта связи.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осмотренные объекты в целом находятся в хорошем состоянии. Но учитывая, что долгое время они находились без должного ухода,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сти ряд ремонтных работ. На время ремонт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временный офис. После начала работы совместного пункта оперативной связи, фактически будут вновь созданы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для возобновления работы Кэсонск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Это, в частности, подача электричества и воды. Однак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сохраняет позицию о том, что этому должны предшествовать меры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Поэтому,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бсуждение данного вопроса зависит от результатов саммита США и КНДР.

Идёт подготовка к встречам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намерено провести исследование состояния разделённых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исследование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ки к полномасштабной перепис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аких семей в обеих Кореях. Цель данной работы состоит в установлении точ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членов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и их желания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встреч с близкими. Между тем, в базе дан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132.124 человека, имеющ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на Севере (56890 человек).

Балерина Пак Сэ Ын получила приз Benois de la Danse

Южнокорейская балерина Пак Сэ Ын стала лауреатк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балетного приза Benois de la Danse. Награждение состоялось 5 июня в Москве на сцене Большого театра. Пак Сэ Ын удостоилась премии за главную партию в части "Бриллианты" балета "Драгоценности" в постановке Джорджа Баланина. Она родилась в 1989 году в Сеуле и окончила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скусств. В 2011 году её приняли в балетную труппу Париж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оперы, которая по праву считается одной из лучших в мире. С тех пор началось её стремительное восхождение по карьерной лестнице. Сейчас Пак Сэ Ын является ведущей балериной Париж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оперы. Это не первая награда в карьере балерины. В 2010 году она стала первой лауреатк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артистов балета в Варне (Болгария), в 2006 году - серебряной победительницей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балетного конкурса в Джэксоне (США), в 2007 году - первой победительницей балетного конкурса в Лозанне. (RKI)

Пиар-успех Кима В Сингапуре прошла историческая встреча лидеров США и КНДР

На состоявшемся 12 июня в Сингапуре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саммите Дональд Трамп и Ким Чен Ын подписали документ, содержащий ряд положений по развитию отношений США и КНДР.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что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весьма неопределенны и особого прорыва не случилось. В то же время очевидно, что Ким Чен Ын выиграл "битву за сердца", представ перед мировыми СМИ одновременно и как умный переговорщик, и как общительный человек. Трамп, судя по его высказываниям, также остался в восторге о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вождя.

Накануне исторической встреч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Ким Чен Ына хватало самых полярных оценок - от ожидания начала "перестройки и гласности" в стране Чучхе до жесткого конфликта двух лидеров и возможной войны между США и КНДР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В целом, можно вздохнуть спокойно и признать, что, хотя многое еще не до конца ясно, Вашингтон и Пхеньян начали нормальный диалог и, похоже, остались довольны друг другом.

Саммит, за которым без преувеличения следил весь мир, стартовал, как и было запланировано. Утром 12 июня в Сингапуре кортеж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Ким Чен Ына по отдельности доехали до отеля Capella на острове Сентоза, и в районе 9 часов утра оба лидера одновременно вышли навстречу друг другу. И Ким, и Трамп выглядели несколько напряженными, хотя и улыбались. Они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перед журналистами, пожимая друг другу руки - при этом Трамп не стал пытаться брать Кима на "слабо" железным рукопожатием, как это было с французским президентом Эммануэлем Макроном. Затем Ким и Трамп сказали по паре дежурных фраз перед репортерами, обозначив, по сути, самые важные для себя моменты. Если Трамп два раза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успешный итог переговоров, то Ким трижды отметил, что договориться об этой встрече было нелегко, но в итоге удалось "преодолеть все трудности и организовать саммит".

Далее Ким и Трамп в течение почти сорока минут общались тет-а-тет в присутствии переводчиков. Что было сказано в это время, остается пока тайной, но, судя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все прошло хорошо. Ким и Трамп вернулись более расслабленными, гораздо веселее улыбались и продолжили общение уже в расширенном составе, где к ним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члены делегаций. При этом, как отметил известный российский кореевед Георгий Толорая, среди помощников Ким Чен Ына на саммите не оказалось никого, что реально отвечает за ядерную программу КНДР. Это позволил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больших прорывов на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е будет, что и подтвердилось в дальнейшем.

Расширен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продлились час и сорок минут, после чего корейцы и американцы вместе пообедали, а затем Ким и Трамп отправились гулять вокруг гостиницы, не взяв с собой даже переводчиков. Трамп при этом успел сказать журналистам, что переговоры прошли "гораздо лучше, чем ожидали многие", что достигнут "большой успех" и вообще консультации были "фантастическими".

Судя по слухам, во время после-



обеденного променада, когда рабочая часть закончилась и можно было расслабиться, Ким блеснул знанием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впечатлив Трампа. Трудно сказать, что именно так повлияло на американ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но он явно стал испытывать к Киму личную симпатию и даже показал ему свой бронированный лимузин, который вождь Страны чучхе с любопытством изучил.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все это время так и не было понятно, о чем именно эпохальном и историческом договорились Ким и Трамп, хотя американский лидер не скупился на громкие слова, а кореец отмалчивался, но пребывал в хорошем настроении и загадочно улыбался. Трамп успел бросить репортерам, что они "идут подписывать важный совместный документ".

Нагулявшись вдоволь, лидеры вернулись в гостиницу и в присутствии СМИ подписали некий совместный документ. Трамп вновь заявил об очень большом успехе, начале новой эры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им согласился с ним, сказав, что "состоялась историческая встреча", а регион ожидает "новый этап". Трамп при этом либо "прокололся", в попытке сделать театральный жест, либо намерен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камерам текст подписанного документа. Хотя и издали, но журналистам удалось все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и затем прочитать. Президент СШ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обещал "все рассказать подробно позже", в ходе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Ким и Трамп вновь обменялись весьма дружескими рукопожатиями и ушли вместе. Вскор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кортеж с Кимом уехал с острова Сентоза и вернулся в гостиницу, где ночевал лидер КНДР, а из Пекина за Кимом уже вылетел специально выделенный для него самолет.

Пока Трамп готовился к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текст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уже попал в СМИ. Оказалось, что Ким и Трамп подписали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по итогам саммита в Сингапуре", где были зафиксированы четыре главных пункта, включая готовность строить новые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во имя мира и процветания,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в целях создания постоянного и стабильного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передать США останки американских солдат, погибших в ходе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53 годов. Что касается главной темы переговоров, которая была заявлена как полный отказ Пхеньяна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лишь подтвердила свое обещание, зафиксированное по итогам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в Пханмунчжоме 27 апреля 2018 года, - работать в целях пол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преамбуле заявления США также пообещали Пхенья-

ну предоставить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за отказ от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Стоит также отметить: Трамп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саммита подчеркивал, что Ким произвел на него очень хорошее впечатление и они очень довольны друг другом. Президент США отметил, что Ким оказался "очень умным и великим переговорщиком", что они "провели много времени друг с другом и смогли хорош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что Ким "очень смелый и талантливый лидер" и т.д. Это произошло и в ходе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когда журналисты открыто указали ему на чрезмерные похвалы. Но Трамп повторил, что Ки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талантливый и очень особенный".

Если оценивать итоги саммита без эмоций, то обещанного прорыва - "сделки века", массовой "сдачи" Ким Чен Ыном своих ракетных и ядерных арсеналов - не произошло. Пхеньян, по сути, не сказал и не пообещал ничего нового, впрочем, так же, как и США. В тексте заявления вообще нет ничего про так называемую формулу CVID - "полный, проверяемый и необратимый отказ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КНДР. То есть, все воинственные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заявления Трампа и его помощников в стиле, что "мы согласны лишь на полный и очень быстрый отказ КНДР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оказались пустыми словами. Никаких разговоров про вывоз ядерных бомб и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КНДР, про открыт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ообще не был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КНДР еще до саммита сделала достаточно большие уступки, заявив о прекращении ракетных и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взорвав ядерный полигон и не став возражать против учений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и. Судя по всему, Дональд Трамп согласился решать проблему КНДР постепенно, чего и добивался Пхеньян.

В любом случае, саммит стал весомой пиар-победой Ким Чен Ына. Он показал как всему миру, так и своей нации, что КНДР на равных ведет переговоры с самой мощной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и военном плане державой, что он, как лидер этой страны, не уступает давлению и умеет успешно отстаивать свои интересы.

Кроме того, в ходе консультаций и пребывания в Сингапуре, Ким сумел завоевать симпатии многих людей. Накануне саммита, вечером 11 июня, он прогулялся по вечернему Сингапуру, сделал "селфи" с местными министрами, и при этом публика устраивала ему восторженный прием. Корреспондент BBC признала в своем репортаже: "Если раньше о нем судили лишь как о человеке, который убил своего дядю, который расстреливает своих подчиненных, держит десятки тысяч заключенных в политических тюрьмах, то теперь он выглядит совсем иначе. Все увидели, что он улыбается, что ведет себя как нормальный человек, что шутит.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его встречали как какую-то популярную кинозвезду. Никто не говорит о давлении, изоляции КНДР. В общем, Ким стал в глазах мира "нормальным" человеком и при этом умелым политико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РФ)

Сахалин принимает первые заявки от участников Финала V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Региональный координационный центр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обществ «Ворлдскиллс Россия» ГБОУ ДПО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ступил к приему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 Финале V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от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За неделю на обработку данных поступило около 50 заявок.

На основании решения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и проведению Финала 2018 оператором процедуры заключения договоров стала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Дирекция I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Как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Рената Райнбагина, в Финале 2018 будут и участники-юниоры категории «16 лет и моложе»,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в заявку обязательно вносятся данные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Эта категория лиц полностью несё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конкурсантов. Они будут обязаны постоян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связь со своими подопечным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времени их нахождения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ответственны за соблюдение конкурсантами программы Финала 2018, внутреннего режима мест проживания, а также правил поведения во время экскурсионн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программ. Каждый регион, имеющий команду конкурсантов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16 лет и моложе», должен направить не менее одного сопровождающего в составе делегаци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могут контактировать со своими конкурсантами в любое время, кроме офици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проведен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Любые контакты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на конкурсной площадке в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допустимы только с разрешения главного эксперта. В случае возникновения за пределами конкурсной площадки ситуации, которая угрожает жизни, здоровью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нкурсант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ий немедленно должен уведомить об этом лидера команды, эксперта-компатриота и членов оргкомитета Финала 2018, из числ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оюза о болезни конкурсанта или произошедшем с ним несчастном случае.

- Оригиналы документов лидер команды предоставит оператору сразу же по прибытию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нкурсанты, эксперты, лидеры команд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лица будут приобретать билеты по выделенным квотам на регулярные рейсы авиакомпании Аэрофлот. Заезд экспертов-компатриотов планируется 4 и 5 августа, заезд конкурсантов, лидеров команд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мы ожидаем 5 и 6 августа - добавила Рената Райнбагина.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голосования по проекту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12 июня торжественно объявлено не менее 10 инициатив, которые получают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Как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бюджетной политики в сфер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открытости бюдже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лена Матвеева, на обществен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было допущено 35 проектов. Кажды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имел возможность выдвинуть две идеи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с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На реализацию лучших из ни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казне резервирован 1 млрд. рублей, до 100 млн. рублей на 1 проект.

Общеобласт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состоялось с 1 по 20 мая. Каждому жителю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был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право выбрать два наиболее понравившихся ему проекта. Голосовать можно было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и очно, в том числе с помощью мобильн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учтены голоса 14 492 человек или 28 984 голоса.

— Это новый уникальный проект,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не имеет аналогов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подчеркнула Елена Матвеева.

В областном минфине сообщили, что разработко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за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другие субъе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ни хотят реализовать подобные проекты на своих территориях.

Сертификаты и грамоты победителям проекта были вручены 12 июня,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празднования Дня России. Среди них, предложенных жителям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и получивших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голосов -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портив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лагеря в Долинске, стадиона в Поронайске и системы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селе Парусное,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В Аниве будет возведен новый стадион, в Невельске, по инициативе жителей, обустроят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парк со смотровой площадко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микрорайоне появится дом культуры. В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 разобьют новый сквер и поставят на въезде в город стелу. В селе Хоэ,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проложат новый водопровод и установят колонки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В Смирных создадут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социально незащищенных слоев населения. Жители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танции биологической очистки сточных вод в селе Бошняково, а в поронайском селе Восток будут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ы стадион и лыжероллерная трасса.

Отметим, что с 2017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йствует программа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которая помимо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й» включает такие направления, как «Поддержка местных инициатив» и «Молодежный бюджет». Они позволяют жителя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участвовать в улучшени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сво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бесплатно научат плавать в самом современном на ДВ водно-спортивном центре

Вла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о запуске нового массового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ля учащихся. Стартов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него станет современный спорткомплекс «Аква Си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г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ышло на финишную прямую.

Сейчас на объекте, который создается в рамках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Горный воздух», завершаются обще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В них участвуют около 300 специалистов. Уже сейчас смонтированы чаши двух бассейнов – длиной 50 и 25 метров. Установлены современные системы очистки и обеззараживания воды, освещения и вентиляции.

- В большом бассейне, который соответствует олимпийским стандартам, мы применили уникально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решение – там инсталлирована подвижная перегородка. Это очень важн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чашу можно разделить на две равные части буквально за считанные минуты, чтобы организовать спортивную подготовку сразу нескольких групп, - рассказ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бщая площадь шестизэтажного здания «Аква Сити» - 46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Под единой крышей со спортивной зоной разместилась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В ней сейчас установлены 3 горки из 8 и 2 небольших бассейна различ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Одновременно в комплексе, который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декабре этого года, смогут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и отдыхать более 1000 человек.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ено безопасности – по оценкам строителей здание будет способно выдержать даже мощное 9-балльное землетрясение. Объектов с подобным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и нет не тольк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о и в Сибири.

«Аква Сити» будет стартов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запуска нового массового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о обучению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плаванию. Посещать комплекс смогут ежедневно до 500-600 ребят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близлежащих районов. Занятия для них будут бесплатными.

Практику обучения школьников плаванию необходимо внедрять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где сегодня есть бассейны,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В дальнейшем водноспортивные комплексы должны появиться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 Новый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проект для школьников станет логичным продолжением уже действующих - «Коньки в школу», «Лыжи в школу» и «Хоккей в школу».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сейчас ими охвачено около 3,5 тысяч детей в нескольких районах юга острова. Этот опыт рассчитываем постепенно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и на други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ребят вовлекались в занятия спортом и оздоравливались, - конста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уренков.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ткрываются новые торговые точки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местных продуктов

К 2020 году доля продук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в общем объеме товарооборота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50 процентов.

Как отмет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талия Розанова, это связано с наращиванием объемов производ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они не только увеличивают выпуск уже полюбившихся сахалинцам продуктов, но и радуют население новинками. В то же время повышается доступность местных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товаров. В области появляется все больше торговых точек, в которых жители 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качественные сахалинские продукты. Сегодня в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ет 406 объектов, так называемой, фирменной торговли. Более 120 из них расположен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роме того, магазины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оявились в Холмске, Корсакове, Невельске, Аниве, Макаров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Поронайске планирует открыть свой павильон птицефабрика «Островная».

— Мясо, молоко, рыба, яйца, овощи, хлебобулочные изделия, произведенные на острове, отличаются высоким качеством. Мы видим, как их быстро раскупают.

Для нас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приобрести эти продукты население может по социальным ценам. Если в магазинах и есть торговая наценка, то она минимальна и составляет не более 15 процентов, — подчеркнула Наталия Розанова.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в 2017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явилось 33 новых объекта фирменной торговли, 17 из них -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омимо этого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заключено более 6,5 тысяч договоров с торговыми точками области на поставки соб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В результате, около 70 процентов всех сахалинских магазинов могут предложить покупателям различную продукцию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Результатом наполнени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го рынка местными товарами является стабильное снижение цен на многие продукты. В связи с увеличением производства мяса крупнейшим в области свиноподкомплексом «Мерси Агро Сахалин» охлажденная свинина в среднем подешевела на 120 рублей за килограмм. Сегодня стоимость килограмма мяса на кости со шкурой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250 рублей за 1 кг.

За два года на 9 рублей подешевел местный картофель. Сегодня он стоит около 33 рублей за 1 кг. В связи с открытием новых теплиц совхоза «Тепличный» намного доступнее стали огурцы. Средняя розничная цена на эти овощи, в среднем, составляет 164 р. за 1 кг. Это на 52 рубля меньше, чем в 2016 году. Средняя цена сахалинских томатов – 156 рублей за 1 кг. Два года назад местные помидоры стоили на 21 рубль дороже.

Сахалинская ярмарка победила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Торговля России-2018"

Впервые победу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ая ярмарка» одержал город Корсаков. Соперниками сахалинского портowego города стали шестьсот ярмарок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 Ежедневно по пятницам мы собираем десятки местных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а прилавках - кондитерские изделия, овощи, фрукты, рыба и мясо. А такая значимая победа подстегнула нас привлечь на нее ещё больше участников. Ассортимент будет расширяться. Кроме того, мы всегда стараемся удивлять наших покупателей. Вот, к примеру, сейчас угощаем бесплатно ухой, пловом, шашлыками,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управл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Екатерина Валуевич.

Прошедшая пятница не стала исключением. На центральной улице Советской вновь развернулась большая торговля. Настроение гостям ярмарки поднимали артисты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ого центра «Океан». Клуб «Варюша» представил зажигательную концертную программу и веселые конкурсы для детей.

- Ярмарка помогла сблизить производителя и покупател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и убрать посредников, что сказывается на цене. К тому же всегда можно узнать о продукции, как говорится, из первых уст. Радует и то, что не забыли про развлечения, приятно видеть, как люди улыбаются 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совершают покупки, - рассказал один из покупателей Александр Божок.

- Хорошее дело придумали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 проводить такие ярмарки. Я слышала, что они скоро станут проходить во многих городах Сахалина. Сама стараюсь обязательно посетить большую ярмарк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есной и осенью, там всегда есть, на что посмотреть и что купить. Если честно, для меня было открытием, что у нас в области такое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Очень много своего, вкусного, полезного. Все есть - и молоко, и мясо, и колбасы, - добавила жительница Корсакова Ирина Беззубенко.

- У меня маленький ребенок и, естественно, я стараюсь кормить его только свежими продуктами. Вот сегодня пришли на ярмарку за свежим творогом. Еще рыбу хотим купить, она здесь всегда свежая, - поддержала покупатель Ольга Звягинцева.

- Вы знаете, я пенсионерка. Для меня стоимость товара имеет значение. А на ярмарке цены довольно низкие, да и торговаться можно. Еще хорошо, что можно поглядеть поближе, потрогать, попробовать, выбрать самому. В общем, хорошо придумали. Народу нравится! - добавила Нина Медведева.

- Уж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мы являемся неизмен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ярмарки. У нас за это время появились постоянные клиенты. Как видите, мясо у нас хранится в специальных холодильниках, подключение к сети обеспечил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Кроме того, вся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я проходит санитарный контроль прямо на месте в передвижной лаборатории, - поделилась мнением продавец мясной продукции «Сахалинский Бекон-2» Александра.

Подобные ярмарки должны стать традиционными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каждом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разработают свой график "дней торговл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나에게 딱 맞는 글로벌 커뮤니티, 한국뉴욕주립대에서 찾았어요!"

캄보디아에서 10년 생활 후 한국뉴욕주립대 입학한 김예은양이 말하는 글로벌 커뮤니티
“같이 이끌어가는 가족같은 분위기 국제적 문화의 밸런스가 최대 장점”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지난 4월, 세계한인언론협회 컨퍼런스 일정 중 인천 송도시에 위치한 한국뉴욕주립대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한국 안에 뉴욕주립대라니? 솔직히 처음엔 감이 잘 안 왔던 것이 사실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매서운 바닷바람을 뚫고 들어간 한국뉴욕주립대에는 예상치 못한 반가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뉴욕주립대는 스톤브룩대학교 (Stony Brook University), 패션기술대학교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빙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 그리고 버팔로 대학교 (Buffalo University) 등 대표적인 4개 학교 비롯해 총 64개 대학이 모여있는 미국 최대 종합 공립 대학교 시스템으로 1948년에 설립되었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는 2012년 3월 한국의 유일한 스마트시티인 송도에 세워진 최초의 미국 대학교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립대학교 (SUNY)와 스톤브룩대학교 (Stony Brook University, SBU)에서 출범하여 미국 밖의 첫 캠퍼스로 인천글로벌캠퍼스를 설립하였다.

10년 전 망망대해 바다였던 송도가 최첨단 미래도시로 변모한 것에 혀를 내두르는 중 방문한 한국뉴욕주립대는 영화에서만 보던 정말 '미국 대학'이었다. 캄보디아에서 반평생 넘게 살아온 나에겐 10여 년 전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터치스크린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던 톰크루즈에 감동했던 것과 맞먹는 감탄의 연속일 뿐이었다. 세계 각국,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자유롭게 학문을 연구하고 저절로 글로벌화 되는 곳, 어떠한 설명을 듣기도 전에 이미 '이런 곳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건 어떨까?' 부러움 반 놀라움 반 기대로 궁금증이 더해졌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김춘호 총장의 인사말, SUNY KOREA 홍보팀의 학교 소개에 이어 마지막에 재학생 발표 순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캄보디아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김예은 양은 당차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하며 새내기답지 않은 노련함까지 곁들여 한국뉴욕주립대 생활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에서 듣는 '캄보디아'라는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 더 애정을 갖고 예은 양의 스토리에 집중했고 캄보디아에 돌아와 바로 서면 인터뷰로 깊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캄보디아 10년, 다양함 속에서 국제적 가치관을 적립할 수 있었던 시간

예은 양은 초등학교 3학년 캄보디아에 처음 와서 약 10여 년간 국제학교에서 글로벌 감각을 배우며 성장했다고 한다.

그는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농구팀, Model United Nations, 봉사활동, 학생회, 댄스, 마케팅 인턴 등 여러가지 경험을 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경험들을 통



해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조금 더 자유분방하고 유연한 성격이 만들어졌다. 이런 성장 배경은 여러가지 도전을 할 수 있는, 매일 같은 루틴 (ROUTINE)이 아닌 다양한 일상을 가지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했고 곧, 자유분방함과 치밀한 계산이 공존하는 패션산업이라는 꿈으로 연결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인 2016년 뉴욕에 위치한 홈캠퍼스 뉴욕 패션 기술 대학교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FIT)에 일사천리로 입학했지만 뉴욕에서의 1학기를 마치고 자퇴를 결정했다. 그리고 작년 가을, 한국 뉴욕주립대와의 만남이 시작됐다.

한국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교 FIT에서 찾아가는 나의 꿈
한국을 떠난 10여 년간 모국이지만 한국의 사회, 문화에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한국은 낯선 곳이 되었었다는 예은 양이 한국행을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생활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사실 캄보디아에서 오랜 학창시절을 보낸 청소년 대다수는 대학진로를 결정할 때 '한국'이라는 옵션을 두고 '과연 내가 돌아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 한국의 교육환경과는 판이하게 다른 국제학교, 로컬학교에서 자유분방하고 한국에 비해 느슨한 경쟁구도 속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경쟁의 정글' 속으로 들어가기엔 누구나 두려움이 들기 마련일 것이다. 예은 양도 마찬가지였다.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한국 교육 시스템이 무서웠고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하지만 예은 양은 이런 두려움을 타고난 호기심과 도전정신으로 부딪혔고 한국뉴욕주립대라면 외국 유학에 비해 더 많은 혜택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최정선택을 하게 됐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예은양의 SUNY행은 대만족이었다.

"한국뉴욕주립대는 한국과 미국의 밸런스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에서 살면서 미국 특유의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평상시 생활에서도 문화적인 밸런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저에게는 더욱 편했습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한국뉴욕주립대에서의 제 경험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한

인 학생들에게도, 특히 패션 쪽에 관심이 많다면,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며 적극 추천의 말을 잊지 않았다.

뉴욕 FIT와 한국 FIT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직접 경험한 뉴욕과 한국의 FIT는 많이 달랐다. 홈캠퍼스인 뉴욕 FIT와 한국 FIT를 둘다 짧게나마 경험했는데 두 학교의 차이점은 어떻게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목소리 나는 답변이 돌아왔다.

"뉴욕의 FIT는 정말 다양하고 개성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또한 학생들도 독립적이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뉴욕의 분주함이 담겨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의 관심과 열정이 느껴지고 그만큼 치열한 곳이기도 해요.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죠. 당연히 한국 FIT에 비해 사이즈가 훨씬 크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수업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어요"

"한국 FIT는 이에 비해서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에요.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분위기이죠. 첫 학번이다 보니까 무언가를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국문화와 미국문화가 적절히 섞여 있어요. 이 점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국제학교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학생 수가 아직은 적은 만큼 수업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어요."

끝으로, 캄보디아에서 대학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예은 양은 이렇게 조언한다.

"캄보디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느끼는 점이지만 대학진학을 생각할 때에는 무엇을 배우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배우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대학의 순위나 '명성'보다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곳이 어디일까 한 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캄보디아 국제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런 글로벌 커뮤니티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또 운 좋게 한국뉴욕주립대라는 곳에서 굉장히 비슷한 커뮤니티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뉴욕주립대가 아직은 다소 생소한 곳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국제학교 한인 학생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학생들도 진로를 생각할 때 자신을 위해 조금 더 폭 넓게 생각하고 찾아보길 바라요."

뉴스브리핑캄보디아2/글 정인솔,

사진 한국뉴욕주립대 제공 (세계한인언론협회 사이트에 올린 기사)

[우리말로 깨달다]

주스 주세요!

우리말 표기법에서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외래어 표기법이다. 어떤 사람은 외래어 표기가 원어 현지 발음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외래어는 근본적으로 한국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렌지의 발음이 현지어와 많이 다르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렌지는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 외래어이기 때문에 영어처럼 표기할 필요성이 낮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발음이 구별되지 않는 음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외래어 표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가능하면 외래어를 현지어 발음과 비슷하게 표기하고 사용한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든다. 굳이 전혀 다른 발음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다.

어떤 사람은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용어와 로마자 표기법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말이다.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부산이라는 도시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 Pusan이라고 할지 Busan이라고 할지 결정하는 게 로마자 표기법이다. 로마자 표기법도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고, 많은 논쟁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했을 때 외국 사람들이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부산의 로마자 표기도 그래서 문제가 되었다. 물론 이 논의에도 한계가 있다. 로마자 표기를 읽는 방법도 언어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여 표기법을 만들어 놓아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일일이 가르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외래어 표기법 중 가장 많이 틀리는 어휘로는 '주스/쥬스, 초콜릿/쵸콜릿, 텔레비전/텔레비전' 등이 있다. 틀리는 이유로는 영어의 발음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예전에는 오히려 잘 틀리지 않았는데, 영어 발음 공부를 많이 한 요즘에 더 틀리는 표현이 되었다. 왜냐하면 영어 발음처럼 하다보면 '쥬, 쵸, 전'이라고 하는 게 원어에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외래어의 발음 자체를 영어처럼 하려고 혀를 굴리는 경향도 나타난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외래어를 영어처럼 발음하는 게 오히려 문제다. 영어로 말할 때는 당연히 발음에 신경을 써서 더 원어민처럼 발음해야 하지만 한국어로 말할 때는 외래어는 한국어 발음체계 내에서 발음하는 게 맞다. 당연히 한국어에 없는 /r/, /f/, /v/, /z/ 같은 발음을 굳이 원어 발음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럼 우리는 왜 주스와 쥬스가 헷갈릴까? 그리고 왜 한국어 맞춤법에서는 주스를 맞는 것으로 정했을까? 맞춤법은 표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한 이유를 알아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한국어의 지읒, 치읒 다음에는 이중모음이 발음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자, 저, 죠, 쥬는 한국어에서 발음할 수 없는 표기다. 차, 처, 초, 쥬도 마찬가지다.

한국어에서 저나 죠, 처가 쓰이는 예들도 있는데 이것은 모두 줄임말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가져'는 '가지어'가 '가져'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보여주기 위한 표기이다. '가죠'는 가지요를 줄여서 쓴 것이다. 처 들어가다의 경우도 '치어'가 줄어들었기에 이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발음으로 본다면 저와 처, 조와 죠, 처와 처를 구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번 구별하여 발음해 보라. 가져와 가져를 구별하여 발음하려고 하면 '저'를 부자연스럽게 굴리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에는 아예 지읒과 치읒 다음에 '야, 여, 요, 유'를 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외국의 지명을 표기할 때도 이 원칙은 적용된다. 미국의 뉴저지도 뉴저지가 아니다. 미국의 조지아 주도 조지아 주로 써야 한다.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다. 존, 제임스, 찰스, 제인, 줄리엣 등으로 써야 한다. 이런 원칙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스 주세요!'를 외워 두면 편리할 수 있다. 주스는 '주'라고 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하는 방법이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сахалинского чемпионата "Абилимпикс", в островную делегацию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вновь были включены эксперты, дети и их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учебным центром. В результате участи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чемпионате Илья Тен прине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ронзовую медаль в компетенции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е баз данных".

В декабре 2017 года проект учебного центра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е дет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и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был признан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й инновационной площадкой.

1 июня 2018 года данный проект получил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что позволит учебному центру продолжать подготовку ребят к участию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и национальном чемпионатах, а также увеличивать количество компетенций, по которым проходит подготовка.

В сентябре учебный центр запускает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курсы для дет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и ОВЗ по следующ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е баз данных; дизайн персонажей/анимация; робототехника; ЛЕГО-конструирование.

Запись на бесплатные курсы начинается уже сейчас.

Заняти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 сентябре и октябре, в преддвер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чемпионата "Абилимпикс",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с 23 по 24 октября.

사할린주, 인구 자연감소

사할린주 1월-4월 시기 기준으로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있었다. 신분등록사무소에는 다태아(쌍둥이) 수 24명을 포함해 출생아 수는 1912명과 사망자 수는 2113명이 등록되었다. 인구수는 201명으로 자연적 감소가 나타났다. 2017년 같은 시기에 섬지방에 인구수는 23명으로 자연증가했다.

아니와 · 쿠릴스크 · 유즈노쿠릴스크구역과 유즈

노사할린스크 총 4개의 지방 자치구역에서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2017년 유사시기에 사할린주에 혼인은 1067건, 이혼 965건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혼인은 910건, 이혼은 883건이 기록되었다.

러시아 내무성 사할린주이민국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월-4월 기간 동안 사할린과 쿠릴열도로 이주한 인구는 6117명으로 그중 56.1%가 영주권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다. 6683명이 거주지를 이전했고 그중 74.9%는 이전의 거주지 등록에서 말소됐다. 사할린주내에서는 2662명이 거주지를 이전했으며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인구수는 566명으로 감소했다.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а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За январь-апрел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а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органах ЗАГС 1912 родившихся, в том числе 24 многоплодных родов (двойни), и 2113 умерших.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201. В аналогичном периоде 2017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ыл отмечен прирост населения в количестве 23 человек.

Превышение числа родившихся над числом умерших отмечено в четыр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Анивский, Курильский,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районы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910 браков и 883 развода против 1067 браков и 965 развод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7 года.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и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январь-апрель 2018 года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рибыли 6117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56,1% —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ыбыли 6683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74,9% снято с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учета по прежнему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преде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еняли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2662 человека. Миграцио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566 человек.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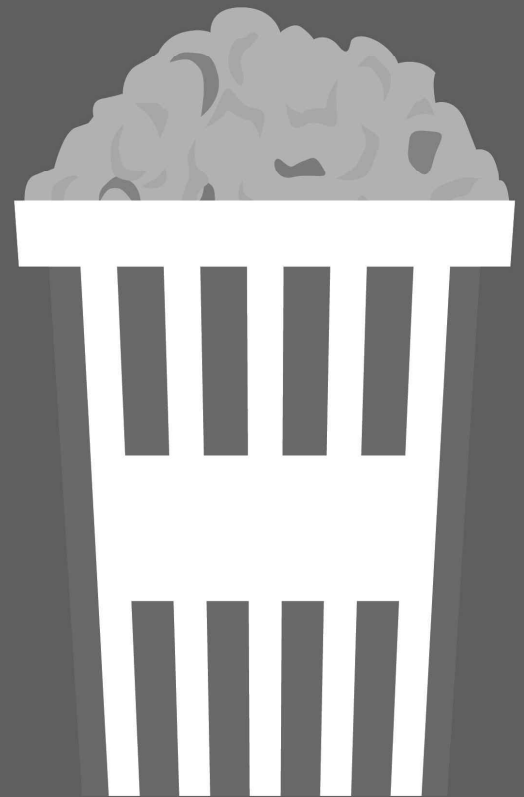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